



음악영재 등용문... '클래식 미래' 밝힌다

콩쿠르 결산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국내 최고 권위의 음악영재 산실로 자리 잡은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제32회 경연에서 고등부 강보림(경기예고 3·피아노)·김수연(홍스쿨·바이올린)·유서연(··비올라)·한예린(서울예고2·첼로)양이, 중등부 윤승현(예원학교1·피아노)·안채윤(방배중2·피아노)·임세은(예원학교3·바이올린)·박은서(·1·비올라)·조윤서(·2·첼로)양이 각 부문 1등을 차지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12~25일 서울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열렸

중·고등부 4개 부문 85명 참가
음악적 기량·성숙도 날로 발전

다.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 4개 부문에서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경연을 치렀으며, 총 85명이 참가했다. 심사위원단은 "기량과 음악적 성숙도가 뛰어난 참가자들이 많아 수상자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부문 1등을 제외한 수상자 명단

◆ **고등부**
△피아노 : 2등 박예슬(서울예고2), 3등 지서영(선화예고3)

△바이올린 : 2등 송예지(서울예고3), 3등 이정현(서울예고3)
△비올라 : 2등 강준경(서울예고3), 3등 장민하(서울예고3)
△첼로 : 2등 김승민(홍스쿨), 3등 김유진(서울예고3)

◆ **중등부**
△피아노 : 2등 한창희(예원학교3), 3등 김여진(예원학교2), 고윤영(예원학교1)
△바이올린 : 2등 표주영(예원학교2), 3등 류지아(예원학교3)
△비올라 : 3등 홍윤아(부평여중3)
△첼로 : 2등 이새봄(예원학교3)·권지우(예원학교1)

부문별 1등 수상자 소감

■ 피아노 고등부 강보림

오랜만에 도전한 콩쿠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열정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음악을 하는 목적이 콩쿠르 입상은 아니지만, 이 성취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해주고 즐겁게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첼로 고등부 한예린

2년 전 중등부 1위를 수상했던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다시 한 번 좋은 결과를 얻어 더욱 의미가 깊고 기쁩니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전 악장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각 악장 특성에 따라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흐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년째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정선이 선생님과 언제나 무대에서 시너지를 내며 함께해주시는 석현주 선생님,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바이올린 중등부 임세은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부족한 연주를 좋게 평가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간 대화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곡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연습했고 콩쿠르 무대에서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인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제게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유효정 선생님 그리고 아름다운 반주로 저의 부족한 연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시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바이올린 고등부 김수연

입시 시작 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는 게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잘 연주할 수 있게 예선, 본선 준비를 열심히 도와주신 실기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콩쿠르를 같이 나온 친구들을 보며 배운 것도 많은 만큼, 더욱 성실히 연습해서 더 좋은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아노 중등부 윤승현

예원학교 입학 후 도전한 첫 콩쿠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너무 기쁩니다. 본선곡인 '리콜레토'는 리스트가 베르디의 오페라 곡 리콜레토를 편곡한 곡이어서 연주할 때 오페라처럼 대화하듯이 연주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일 경연 순서가 1번이어서 많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었지만 침착하게 연주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음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고 늘 소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손은정 선생님, 이정화 선생님과 제가 지지하지 않도록 항상 응원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비올라 중등부 박은서

짧은 기간 내에 어려운 곡을 준비하느라 불안감과 부담감이 휩싸여 마음을 비워두고 경연에 임하였는데, 1위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놀라기도 했고 무척 기쁩니다. 우선, 언제나 저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홍지혜 선생님과 반주해주신 김양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없는 사랑과 지원으로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선에서 연주한 'W. Walton'이라는 곡은 기교를 선보이면서도 비올라 특유의 중후한 음색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전부터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습니다. 콩쿠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 비올라 고등부 유서연

음악을 시작한 뒤, 가장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매 순간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흥미로워 재미를 느끼며 연습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제 음악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더 잘 전달할지를 가장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려면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오른손의 모양을 늘 신경 쓰며 깊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에 끝까지 더 노력할 것이지만 세계일보콩쿠르에 나온 것이 음악적으로 일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영광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앞으로 더욱 대성하는 음악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아노 중등부 안채윤

권위 있는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1위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본선에서 연주한 쇼팽 론도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곡이고 또 자신 있는 곡이라 많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무대에서 너무나 아쉬운 연주를 하고 내려와 잘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입상은 무리라고 생각해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1등이라는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좋은 음악으로 지도해 주시는 손은정 선생님, 사랑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겠지만 언제나 행복한 무대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첼로 중등부 조윤서

세계일보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본선에서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토 4악장'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값진 시간을 통해 지금의 보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열정 넘치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강호, 정선이 선생님과 좋은 무대를 이끌어 주시는 안지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된 연주를 위해 노력하는 연주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집계표 (1. 각 부문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로 순위 결정(심사점수 동점이 2인인 경우 하나만 적용) 2. 수상자 제외한 연주자는 이름 * 표기, 심사위원은 알파벳 표기)

피아노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유**	(85)	90	89	86	(92)	86	87	438	
박**	(84)	87	85	84	(90)	85	87	428	
지서영	(94)	91	90	90	92	(88)	90	453	3등
이**	(84)	89	(86)	86	89	89	87	440	
이**	(85)	87	87	86	90	(91)	90	440	
김**	(84)	(92)	85	85	92	85	88	435	
강보림	(93)	93	(91)	93	91	92	91	460	1등
박예슬	91	(93)	92	93	(90)	91	92	459	2등
정**	(80)	(90)	86	90	88	85	86	435	

피아노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윤승현	90	93	89	(95)	92	(87)	93	457	1등
송**	(87)	90	90	(91)	90	87	87	444	
안채윤	90	(88)	92	93	90	92	(94)	457	1등
김여진	(86)	89	(94)	91	88	93	89	450	3등
한창희	91	93	(90)	90	92	(95)	90	456	2등
고윤영	(92)	89	(85)	90	91	91	89	450	3등

바이올린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송예지	(94)	92	88	92	93	92	(85)	457	2등
이**	91	87	(86)	89	87	(92)	88	442	
김수연	(95)	90	(87)	91	90	93	94	458	1등
조**	(94)	90	(85)	88	88	88	90	444	
이정현	92	(88)	90	(93)	91	91	92	456	3등

바이올린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표주영	91	91	(87)	91	(93)	92	89	454	2등
임세은	(95)	93	90	93	91	(89)	92	459	1등
류지아	(93)	91	(88)	92	89	90	90	452	3등

비올라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장민하	88	89	(90)	89	(85)	87	90	443	3등
유서연	90	93	91	93	(88)	90	(95)	457	1등
강준경	(92)	91	(89)	91	90	89	92	453	2등

비올라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홍윤아	88	(90)	88	90	(87)	88	89	443	3등
박은서	92	92	92	(94)	91	(90)	93	460	1등

첼로 고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김유진	90	88	(87)	(92)	91	88	357	3등	
한예린	(95)	90	93	(89)	92	91	366	1등	
김**	88	(86)	(90)	90	87	86	351		
김승민	(92)	88	91	(85)	89	92	360	2등	

첼로 중등부

연주자	심사위원							합	수상
	A	B	C	D	E	F	G		
권지우	(91)	89	91	(87)	87	88	355	3등	
김**	86	85	(82)	85	85	(89)	341		
이새봄	88	90	(85)	(92)	88	92	358	2등	
조윤서	(91)	91	(94)	91	92	93	367	1등	